

美·中 갈등에 발목 잡힌 ‘틱톡’ “국가안보 등 데이터 안전문제”

13일 하원서 틱톡금지법안 통과
개인정보 수집·중공안 전송 혐의
조지아대학 보고서 “정황 없어”
구글·애플 등 EU서 벌금 철회

SNS 틱톡(TikTok) 퇴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연일 관계자를 불러 틱톡의 문제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이 틱톡을 통해 표출된다는 설명부터 자국 기업 보호, 중국발 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악스오스를 비롯해 미국 내 외신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틱톡이 사용자 감시와 거짓 정보 선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브리핑 내용 중에는 틱톡이 이용자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및 전송, 자판 사용 및 앱 이용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 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며 이루어졌다.

이번 틱톡금지법 가결에서 문제시된 것은 틱톡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중국 공안당국 내 정보 전달 혐의다. 국가안보와도 관계있는 데이터 안전 문제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하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틱톡을 대표로 하는 본디(bndee) 등 중국 앱들은 모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과시킨 것은 2021년 5월이다. 이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 중인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조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PEXEL

전까지는 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기도 하다.

실제 틱톡금지법안이 가결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틱톡의 퇴출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루어질 만큼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을 문제로 들어 금지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랜드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가결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연구소마다 다른 결과를 내면서 실제 입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호주 인터넷 2.0(Internet 2.0) 연구소에서 낸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틱톡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과도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밀튼 L. 필러 교수 등이 펴낸 조지아 테크 보

고서는 “틱톡은 현재 대부분 SNS 앱을 포함한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틱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국가간 문제로 본다.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환으로 해석하거나 미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자가당착으로 해석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DSA 패키지가 시행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메타는 EU로부터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여러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거대 SNS 기업은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이용한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정보를 수집 후 이를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유독 틱톡에 관해 미국 정부가 예민 반응을 보이며 매각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메타 등 미국 내 주류 플랫폼 기업 대다수와 달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온라인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진출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을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및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구축,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는 물류비 할인 및 풀필먼트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약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도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청호나이스, 美서 에스프레카페 등 호평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

청호나이스가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문 박람회인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에서 뛰어난 기술력이 담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24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프리미엄 올인원 제품인 ‘에스프레카페’와 초소형 슬림 사이즈 역삼투압 정수기 ‘TIDY’ 그리고 향균 공기청정기 ‘A600’ 라인업 등을

소개하며 현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스프레카페’는 에스프레소, 룽고, 아메리카노, 소프트아메리카노 중 나만의 스타일 선택이 가능하며, 최적의 원두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신모듈을 적용해 이상적인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내장된 카본블록의 경우 NSF/ANSI 미국 인증 규격에 따라 WQA(국제수질협회)로부터 미세플라스틱 99% 제거 인증을 받았다.

청호나이스 향균 공기청정기 ‘A600’은 총 4단계 공기청정 기능과 산화아연 소재 향균 집진필터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업 신입채용, 학벌보다 직무능력 우선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 압도적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출신 학교 등 스펙보다는 직무관련 일경험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식은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20일~12월 22일 중 실시했으며, 315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우선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를 묻는 질문에 ‘직무관련 일경험(35.6%)’, ‘일반직무역량(27.3%)을 1,

2번째로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 중 79%는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채를 병행했는데, 기업들은 향후 채용방식에 대해 수시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76.2%)을 꼽았고,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장기(3~6개월) 인턴십’(74.0%),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 등을 선택했다.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해 ‘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다만, 청년들은 기업보다 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 혁명 분야 채용 증가’(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체 청년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장인화 “초일류 기업, 현장에 해법 있다”

(포스코그룹 회장)

100일간의 현장경영 스타트
첫 행보로 포항 열연공장 방문
직원들과 구내식당서 소통이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시작했다. 취임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최정우 전 회장과 달리 장인화 회장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포항 냉철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장인화 회장이 포항 4고로 개수 현장에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그룹

만들겠다고 밝힌 장 회장의 첫 현장 행보다. 이번 현장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설비와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과 소규모로 만나 자

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장 회장은 “초유의 사태를 맞아 녹록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상화를 이뤄낸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혹독한 시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여러분의 노고에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수해 복구 당시 현장을 지킨 포항제철소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장 회장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단결되는 마음이 바로 포스코의 저력”이라며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현장과 직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